

디지털 시대 남북 협력의 새로운 장

최근 산자부 장관은 남북 산업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의 제조업 부문부터 변화시키고 동시에 사회간접시설, 서비스 분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옳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더 보충되어야 하는 말이다.

북한의 산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전체 경제 구조와의 관련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적 경제 환경의 변화와 내부 역량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경제 협력은 크게 4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남한내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남한에서는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성장 한계 산업이 대거 등장하였다. 둘째, 북한 지역의 경제적 장점이다.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양질의 저임 노동력과 일정 정도의 과학 기술 수준 확보, 지경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심이라는 측면은 북한의 경제적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세계 경제는 기존의 아날로그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도 기존의 단순 추격형이 아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 재건에는 대규모의 투자 및 수요가 필요하며, 북한 경제가 일정 정도 회복되면 북한 주민들의 각종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고려 사항은 북한을 단지 우리의 경쟁력을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한반도 전체 경제적 입장에서 보아 북한 지역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묻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 하에서 우리는 기존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향후 가장 문제가 될 정보 기술 산업에 대한 남북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다. 이번 이산 가족 상봉때 많은 화제가 언론에 떠올랐는데, 언어 문제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간의 언어상 이질성을 화제로 삼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학자는 남북한 언어 이질성은 경상도, 전라도간 이질성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점이다. 실제로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정보화 및 정보 기술 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어상 이질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문이다.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한 경제 구조의 주축을 이룰 정보화 및 디지털화의 차이에 따른 지나친 지역간 정보 격차는 결국 한 경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여 전체 산업 구조를 왜곡할 지 모른다.

남북한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북한간 정보화 및 디지털화 격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북한 경제는 향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결국 민족 통합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김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남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라는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있게 들린다. 그것은 향후 남한만을 감안한 경제 정책 틀에서 벗어나 남북한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경제 정책을 수행해가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결국 디지털 시대에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단지 남한 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만이 아니다. 북한을 우리와 한편에 서있다고 느낀다면, 북한과의 산업 협력 방식 역시 단순한 경쟁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남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측면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